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음식의 문학적 재현과 의미

- 『시장과 전장』을 중심으로 -

김 미 영

(한양대학교 교수)

< 차례 >

- 1. 박경리 소설과 음식
- 2. 비루함의 파토스와 자존의 양립
- 3. 이념과 생존의 양립, 그리고 생명주의
- 4.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국문 요약>

이 글은 박경리의 전쟁체험이 담긴 초기의 장편소설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음식의 문학적 재현’, 즉 음식 모티프를 중심으로 하여 인물과 서사의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음식은 인간생존에 직결되는 유물론적 성격을 지니면서 문학적 재현으로 등장할 때에는 소설의 의미에 관여하는 서사적 기능을 발휘한다.

박경리의 초기 장편소설을 ‘음식’이라는 문화적 코드로 접근한 것은 전쟁의 극한 상황과 일상의 삶 사이에서 고향하는 인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효한 질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장과 전장』에는 음식의 문학적 재현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총 40장으로 구성된 작품에서 거의 각 장마다 음식이 등장하여 인물의 성격화, 사건전개, 작가의 문학사상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음식 모티프는 작중인물 남지영과 하기훈의 의식의 변화와 심리적 정황을 드러낼 때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낭만적 특성을 지닌 남지영은 음식을 통하여 인간의 비루한 모습에 혐오감을 표현하고 인간의 자존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특히, 지영의 모습에서 부각된 생명체에 대한 존중은 박경리의 문학사상인 생명주의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철저한 코μμ니스트인 하기훈의 경우는 음식을 통하여 이념을 신봉하는 자와 생존을 선택하는 자의 대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작가의 시선은 생존을 선택하는 인물에게 비판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양한 주변 인물들의 음식과 관련된 모습을 통해서 전쟁 중에 타인을 돌보는 태도,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음식은 사회적, 역사적 재구성의 힘을 지닌 대표적인 문화로서 박경리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문학사상이라 할 수 있는 생명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 주제어: 『시장과 전장』, 음식, 전쟁, 인간의 비루함, 이념, 돌봄, 생명존중, 생명주의

1. 박경리 소설과 음식

이 글은 박경리의 전쟁체험이 담긴 초기의 장편소설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음식의 문학적 재현’, 즉 음식 모티프를 중심으로 하여 인물과 서사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인간에게 음식은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 유물론적 대상이다. 음식의 일차적 역할이 유기체로서의 생명을 지탱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음식과 연결된 인간의 행위 속에는 문화적 의미망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삶의 서사를 형성하는 데에 중핵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데 음식이 중요한 지표가 된 것이다. 이는 음식이 단순한 일차적 섭취물의 위치를 넘어 문화적 기호를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가 강해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서사에 나타난 음식에 주목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음식의 문학적 재현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상의 음식이 작중인물의 성격화, 사건전개, 주제구현 등의 서사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E.M 포스터가 소설 제재의 주요한 요소로 ‘출생, 밥, 잠, 사랑, 죽음’ 등을 거론한 것에서도 음식이 지니고 있는 서사적 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에 관련된 문학연구는 기대만큼 축적되어 있지 않다. 소설보다는 시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그 성과를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백석의 작품에 집중된 편이다.¹⁾ 소설의 경우, 음식문화로 접근한 연구가 미진한 것은 백석처럼 특정한 소설가가 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학연구에 ‘문화론이 수용되면서 음식을 모티프로 한 소설에 관심이 모아지며, 이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음식’과 관련한 소설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식품학 전공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있다. 이는 소설에 나타난 ‘음식’을 조명하고 있으나 문학적 상상력에 기반한 연구가 아니라 우리 전통음식의 변화양상을 소설에서 입증하는 ‘음식’의 사적 변모를 살펴보는 작업이다.²⁾ 문학연구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화사적 관점에서 ‘음식’에 주목한 주영하의『음식전쟁, 문화전쟁』과 같은 연구는 문학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는 외국 소설에 나타난 음식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다. 프랑스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음식과 기호, 음식 철학 속에 담긴 프랑스 역사와 문화에 관한 고찰³⁾과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씹싸름한 초콜릿』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라캉의 욕망이론과 인류학, 문화사적 시각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한국현대소설의 연구에도 참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현대소설 전공자의 연구성과를 들 수 있다. 한국현대소설 연구에서 ‘음식’과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는 소설과 여성, 음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있는 김경수의 글⁴⁾이 될 것이다. 이글은 페미니즘적 관점을 주된 방법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달리 문화기호학적 방법으로 접근한 김재경과 이경의 연구도 주목할 수 있다. 김재경⁵⁾의 연구는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적 분석으로서 문화론적 접근이라는 데 의미를 지니며, 이경⁶⁾은 근대소설 및 5·60년대 한국소설과 음식의 기호학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중시한 방법으로는 김동식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김동식⁷⁾은 1920년대 김기진과 최서해의 작품에 나타난 ‘밥’의 형상을 ‘끼니’의 무의식으로 접근하였다. 아예 ‘음식소설’이라는 장르화를 타진한 김주연의 「한국 음식소설의 맥락과

1) 백석 시에 나타난 음식에 대하여 음식의 아우라, 타자의 윤리, 음식과 사유의 관계 양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다수 눈에 띈다. 시집 전반에 음식을 반영한 백석 시의 특색이 불려온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백석의 시에 나타난 음식의 의미를 소논문뿐만 아니라 저서로 발간한 소래섭은 백석의 시에 그토록 많은 음식이 등장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백석 시에는, ‘밥고, 거룩하고, 그윽하고, 깊고, 맑고, 무겁고, 높은’ 것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며, 그가 찾고자 하는 전통이기도 하다. 백석 시는 결국 그 마음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마음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음식이나 맛을 통해’ 사라져 버리는 마음을 ‘섬광처럼 지나가는 이미지’로 포착하였다는 것이다. 백석의 시에 나타난 음식은 백석이 찾고자 한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소래섭(2018), 『백석의 맛』, 프로네시스, 246쪽)

2) 김미혜·정혜경(2011), 「소설 『미망』 속 19세기말 개성의 음식문화」,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21, 동아시아식생활학회.
김미혜·정혜경(2011), 「소설 『토지』를 통한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의 음식문화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6, 한국식생활문화학회.

3) 김태형(2013), 「음식 철학 속에 담긴 프랑스 역사와 문화에 관한 고찰」, 『시대와 철학』 제24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은경(2014), 「프랑스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음식과 기호」, 『프랑스어문교육』 제46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4) 김경수(2003), 「소설·여성·음식」, 『인문과학연구』 8,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 김재경(2009), 「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김이태 「식성」과 한강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학회.

6) 이경(2004), 「근대소설과 음식의 기호학」,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28,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이경(2004), 「5·60년대 한국소설과 음식의 기호학」, 『사회 이론』 26, 한국사회이론학회.

7) 김동식(2012), 「1920년대 중반의 한국문학과 ‘끼니’의 무의식:김기진과 최서해, 그리고 ‘밥’의 유물론」, 『문학과환경』 11, 문학과환경학회.

가능성」⁸⁾도 주목할 수 있다. 음식 모티프가 나타난 소설에 대하여 ‘음식 소설’이라는 장르의 가능성을 보여준 이 연구는 한국소설에 나타난 음식 모티프를 개화기에서부터 1920년대 소설에 집중하고 있다. 소재에 의한 장르화는 문학분류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도 있어 재고의 여지를 지닌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음식문제에 대한 산발적인 관심을 총체적 지형도에 위치시킨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에는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채식’의 의미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이다.⁹⁾

이 글에서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음식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경리의 초기 장편소설이 전쟁의 극한 상황과 일상의 삶 사이에서 고향하는 인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기에 ‘음식’이라는 문화적 코드로 접근한다면, 좀 더 풍성한 삶의 양상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인간에게 필요불가결한 음식은 평범한 일상과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그 의미가 다를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60년대 초기 장편소설은 전쟁체험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 시기의 소설에 나타난 ‘음식’은 유물론적 특성을 드러내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식을 반영하기에도 적절한 모티프로 보았다.

6·25 전쟁에 대한 문학적 인식은 시간의 진전에 따라 변화를 드러낸다. 전쟁 발발시기와 큰 시차를 보이지 않는 1950년대의 문학적 인식은 ‘피해의식’이 지배적이었다. 즉 생존의 위기와 존재론적 불구의식, 윤리적 파탄, 역사적 수난 의식 등을 묘사하는 데 주력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

8) 김주연(2015), 「한국 음식소설의 맥락과 가능성」, 『우리어문연구』 52집, 우리어문학회.

9) 신수정(2010),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9, 문학과환경학회.

김미영(2017), 「교양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그로테스크-오수연의 『부엌』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6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김미영(2018), 「음식의 문학적 재현과 주체화의 방식 - 한강과 오수연의 소설에 나타난 ‘음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9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다. 이경의 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면 6·25 전쟁에 대한 내면화 과정을 거친다. 분단의 이론적 인식과 내면화, 성장기적 각성 등¹⁰⁾을 함유한 통찰력과 객관적 태도를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60년대 전쟁문학의 특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은 간과할 수 없는 작품이다.

박경리의 초기 작품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사적 체험담의 서사화¹¹⁾, 여성인물의 내면세계의 경도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특성과 변별되는 지점이 『표류도』를 시작으로 한 『파시』,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등의 작품이다. 전쟁미망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겪었던 신산한 삶과 전후 사회의 불신감 등의 개인적 체험을 서사화한 텍스트에서 탈피하고 전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며 전쟁을 사회적, 역사적, 이념적 자장 안에서 인식하는 작가적 변모를 이 텍스트들은 보여주고 있다.

『표류도』와 『파시』는 『시장과 전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음식 문화의 빈도수가 약한 편이다. 두 작품은 전후, 또는 전장과 거리가 있는 후방을 배경으로 하여 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진행되는 일상적 삶을 드러내고 있다. 전쟁미망인 강현희의 삶을 보여주는 『표류도』와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 조명화와 박옹주의 사랑과 이별을 전개하는 『파시』에서는 생명의 존중과 타자의 돌봄, 그리고 여성이 겪는 성 모랄을 음식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서사 전개에 결정적 역할을 하거나 작중인물의 성격화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미흡하다.

반면, 『시장과 전장』은 압도적으로 음식 모티프가 우세하다. 1,2권 총 40장으로 구성된 장편에서 8장, 36 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장에서 음식이 등장한다. 모든 작중인물이 한번씩은 음식과 관련되어 그려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음식관련 어휘, 식사하기, 음식에 대한 환상 등

10) 이재선(1991),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87쪽.

11) 유입하(2012),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문학적 전환-《애가》와 《표류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6, 한국문학연구학회, 482쪽.

음식담론에 포함할 수 있는 문학적 재현의 횡수가 106회였다. 좀 더 정밀하게 보더라도 100 여 차례는 해당된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쌀, 밥, 떡, 고구마, 밀가루였다. 텍스트에 이렇게 산포되어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생명유지와 관련 있는 ‘끼니’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주인공과 결합된 음식 모티프는 다른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그려진 음식문화는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작가의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 『시장과 전장』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졌으나 ‘음식’으로 접근한 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¹²⁾ 이 작품에 대한 백낙청의 글은 작가와 논쟁을 일으킨 점에서 관심을 끌었고, 이후의 비평에 영향을 끼친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중인물과 구성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보인 백낙청의 글에 대하여 유종호는 작가와 비평가의 입장을 모두 조율하는 종합적 논의를 보여주었다. 이 작품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조남현¹³⁾에 의하여 조목조목 드러나고 있다. 이후에 나타난 글들도 작품에 대한 찬반의 견해로 나뉘고 있으나 작품론에 대한 분석은 매우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에 대한 관념적인 묘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는가 하면, 전쟁의 원인인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대해서 긍정적 논의¹⁴⁾를 함으로써 양분된 관심을 드러내었다. 대표적

- 12) 우수영(2015), 「박경리 『토지』와 최명희 『혼불』을 통해 고찰한 한국의 음식문화」,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58. 이 논문은 박경리의 『토지』를 음식으로 접근한 연구이다. 『토지』와 최명희의 『혼불』을 함께 다룬 것으로서, 한국의 음식 ‘문화’면에 더 초점을 두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장과 전장』과의 관계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대하소설에 나타난 음식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문화를 다룬 점에서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 13) 조남현은 『시장과 전장』을 박경리의 문학세계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소설사에서 의미 있는 작품으로 보았다. 즉 전쟁체험을 제재로 한 『표류도』, 『과시』 등과 비교할 때 이 작품은 전쟁의 의미, 이데올로기, 이념 대립, 민중의 속성 등의 문제들을 고려하여 60년대로서는 객관적이며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기록과 해석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조남현(1993), 『『시장과 전장』과 이념 검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집, 한국현대문학학회, 128쪽.)

인 연구로 김복순, 구재진, 임경순, 김양선 등의 글을 주목할 수 있다.¹⁵⁾ 최근의 글에는 나보령, 박은정의 연구가 있다.¹⁶⁾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이념소설로서의 특징, ‘시장’과 ‘전장’의 의미, ‘사랑’에 의한 구원 가능성, 작중인물의 낭만성 등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시적 접근¹⁷⁾을 수용한다면, 즉 음식 문화론으로 접근한다면 작가의 의식세계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의 일상적

- 14) 부정적 논의의 대표적 논자는 백낙청(1965.4)의 「『피상적 기록에 그친 6·25 수난』, 『신동아』이며, 긍정적 논의는 조남현의 글을 들 수 있다. 최근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이 작품을 ‘전쟁의 기록’으로 보고 6·25라는 역사적 사건과 그 경험이 얼마나 잘 형상화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15) 김복순(1996),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사랑과 이념의 두 구원」,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출판사.
 임경순(2005), 「유토피아에 대한 몽상으로서의 이념 -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45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김양선(2008),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페미니즘연구』 제8권, 한국여성연구소.
- 16) 나보령(2016), 「시장의 풍경에 주목해 다시 읽는 전후소설 시론」, 『현대소설연구』 제6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박은정(2016), 「『시장과 전장』의 생존의 서사」, 『여성문학연구』 제3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 17) 미시적 접근으로 대표적인 신문화사의 방법론을 주목할 수 있다. 신문화사(New Cultural History)는 20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포스트모더니즘 사고에 바탕을 둔 역사학이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부르크하르트와 호이징하의 전통에 접목되어 일어난 신문화사는 ‘일상생활의 역사’를 더욱 강조하는 방법이다. 신문화사(New Cultural History)의 등장은 전쟁이나 권력구조의 변화, 군주나 영웅 중심이 아닌, ‘이름 없는 사람들의 문화나 일상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려는 시도로 기존의 전통적 역사 연구 방법론의 해체가 목표이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역사(History from below), 즉 민족, 국가, 혁명의 역사와 같은 거창하고 고상한 역사 서술의 틀을 해체하고, ‘낮은 것(계층)’이나 ‘작은 것(사건, 사물)’이 주체가 되는 역사 서술 방식이다. 전체사(total history)적 흐름 아래 정작 주인공인 인간 개개인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거대 역사(거시사)보다는 경계가 확실한 지역 내에서 어떤 위기나 사건에 대처하는 그곳 사람들의 생활 전략이나 가치관을 면밀히 파악하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역사의 복잡다단한 리얼리티를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피터 버크, 조한욱 옮김(2005), 『문화사란 무엇인가』, 길, 참조함.)

삶의 모습도 천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선행연구의 다양한 논의에 대립적 시선을 갖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동일한 논의로 귀결된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거기에 다다른 방식으로 ‘이념’이나 ‘사랑’, ‘시장’의 의미 대신에 ‘음식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전후소설을 다시 읽는 작업은 일차적으로는 전장 너머의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 전쟁이 가져온 미시적 차원의 지각변동에 초점을 맞추는¹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작업은 과거 전후문학을 설명하는데 절대적이었던 이념과 체제 대립의 현장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서도 일상적 삶을 꾸렸던 인간들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참담한 ‘전쟁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하는 음식이기에 일반적으로 음식담론에서 언급할 수 있는 전통문화로서의 음식, 음식을 만드는 과정과 연동되는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보여주는 음식, 소울 푸드¹⁹⁾로서의 음식 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편이다. 전쟁 시기는 ‘감정적 허기’를 채우는 음식보다는 ‘신체적 허기’를 채우는 음식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이 글은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음식의 문학적 재현이 과연 그러한지, 그렇다면 박경리만의 독특함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관심을 두고자 한다.

2. 비루함의 파토스와 자존의 양립

『시장과 전장』은 1964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제수(弟嫂)와 시숙(媿叔)이라는 다소 생경한 두 관계의 남녀 주인공이 6·25 전쟁 직전부터 9·28

18) 나보령(2016), 앞의 글, 41쪽.

19) 소울 푸드는 미국 남부 흑인들의 전통음식을 가리키며, 대표격이 프라이드 치킨이다.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노예제 시절, 프라이드 치킨은 흑인노예들이 백인 농장주들이 버린 음식을 가져다 요리한 것이다. (모리시타 노리코, 지희정 옮김(2018), 『맛 읽어주는 여자』, 어바웃어북, 43쪽.)

수복 동안의 3개월 여의 시간 안에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제목에 등장하는 ‘시장’과 ‘전장’이라는 상징적 공간은 대체로 여주인공 남지영과 남주인공 하기훈의 서사와 대응하면서 서울 시민으로서 겪었던 피난체험과 전쟁에 가담한 코뮤니스트의 행로를 보여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작품은 빈곤층, 또는 소시민에 해당하는 인물의 전쟁체험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남지영은 속물근성과 허영심을 지니고 있는 남편 하기석의 지원하에 대학을 마치고 교사가 된 여성으로서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인물이다. 한편, 하기훈은 유학을 마친 코뮤니스트로서 가정을 이루지 않은 독신으로서 경제적 어려움과는 거리가 먼 북한장교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이경의 글에서 밝힌 극빈자의 상황에서 6·25를 견뎌낸 인물들의 고난기와는 차이가 있다. 즉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일반적인 전쟁 상황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는 다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과 전장』에 나타나 있는 진정한 대립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하는 지영과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전쟁이라는 상황의 대립이 가장 선명하다. 지영의 심리와 지영이라는 캐릭터의 완성이 ‘음식’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이 서서히 드러난다. 선행연구자들은 남지영에 대한 분석을 낭만적 속성을 지닌 교양주체, 생활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여성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에 동조하는 입장이며, 여기에 부가하여 이와 같은 논의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그녀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파악하면 이 캐릭터의 특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음식 모티프는 남지영과 하기훈, 두 서사라인에서 모두 비중 있게 드러난다. 이 장에서는 지영의 서사에 나타난 음식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영에게 시장은 특별한 공간이다. 그녀의 성품, 인생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때 시장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받은 강렬한 인상, 감정이 중요하다.

시장 어귀로 되돌아나온 지영은 잠시 걸음을 멈춘다. 국수 장수 떡 장수가 모여 있다. 사고 파는 일을 끝낸 농부와 아낙들이 쭈그리고 앉아 요기를 하고 있었다. 수염에 묻혀 잘 보이지도 않는 입술 안으로 노인은 국수가락을 빨아들인다. 짹짹 소리를 내며 재미나게 빨려들어간다. 아이처럼 얼굴을 가우똥 기울이고 국물까지 다 마신 뒤 노인은 아쉬운 듯 대접의 바닥을 들여다 본다. 노파가 시루떡을 먹고 있다. 땀을 흘리면서 뺨하니 패인 두 눈, 가뭇에 갈라진 눈바닥처럼 굵은 주름이 잡힌 검은 얼굴, 흉과 더불어 지내온 코끼리 가죽 같은 손, 노파는 시루떡을 입으로 가져가다 가만히 바라보고 서 있는 지영을 보면서 시루떡을 입으로 들여보내고 씹듯이 웃는다. 지영은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도망치듯 시장 밖으로 나간다. 노파의 얼굴이 자꾸만 뒤따라 오기라도 하듯 돌아보지도 못하고. 집념에 가득 찬, 굶주린 미소. 나이 먹어갈수록 사람은 음식을 먹는 모습이 추해진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추해진다. 어릴 때, 젊을 때는 저절로 살지만 나이 들수록 발버둥치듯 살아간다. 그래서 사는 것도 먹는 것도 추하게 보이는 것일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데 지영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²⁰⁾

6.25 전쟁 발발 전, 지영은 연안의 시장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노파를 보고 ‘구역질’을 느꼈다. 지영의 관념 속에 있는 시장은 “생활이 이곳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보고 ‘도망치듯’ 빠져나간다. 노파의 시루떡을 먹는 모습이 매우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직면한 지영에게 노파의 모습은 인간의 비루함을 느끼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노인’이라는 연령대는 삶의 연륜을 지닌 세대로서 그만큼 인간의 존엄을 드러내어야 할 세대이다. 그러나 노동과 가난이 온 몸에 배어 있는 노파가 음식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며 시루떡을 먹는 모습에 지영은 혐오감을 갖는다. 낭만적 특성²¹⁾을 지닌 지영의 눈에 음식에 집착하는 인간은 고결함

20) 박경리(1993), 『시장과 전장 1』, 나남, 128-129쪽. 이후의 인용문은 1,2권의 표지와 쪽수만 표기한다.

21) 김양선(2008),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페미니즘연구』 제8권, 한국여성연구소: 김미영(2016),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낭만성과 숭고』, 『문예비평연구』, 한국문예비평학회.

과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바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노파’라는 점이다. 노파를 바라보는 지영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다. 노인 세대는 자연적 현상으로 볼 때 생명이 소진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사의 자연스런 현상을 강력히 거부하듯 왕성한 식욕을 드러내는 “집념에 가득 찬” 표정이 지영에게는 “구역질”이 나도록 견디기 어려웠다. 지영은 피란 중에 개장국을 먹는 노파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낀다.

“거 안 잡수실려면 날 주시구려.”

늙은이가 말라빠진 손을 내민다.

“그러쇼.”

윤 씨는 늙은이에게 사발을 넘겨준다. 반백이 된 남비녀를 찌른 늙은이는 굶주린 개같이 개장국을 훌쩍훌쩍 마신다.

“아이 매시굽다!”

윤 씨는 아이들 주려고 가겟집에서 사온 사탕을 꺼내어 지영이에게 주고 자기도 먹는다.

(중략)

헛간에서 보는 달이 멀리, 유성처럼 떠밀려간다. 그리고 작은 등불처럼 아슴푸레 깜박거린다. 달은 다시 가까이 크게 둥그렇게 다가온다. 지영은 구역질을 느낀다. 훌쩍 훌쩍 개장을 먹고 난 뒤 포수에게 쫓기는 이리들처럼 눈을 회반덕거리고 앉아 있는 옆의 노파. 연안 시장에서 떡을 사먹던 그 노파의 얼굴이 이 헛간 속에 가득 차 있다. 그 얼굴은 지영 자신의 얼굴이기도 했다. 천사처럼 살 수도 없고 악마처럼 살 수도 없고 오직 비굴하게 목숨을 거머잡고 매달려 어디로 사람들은 흘러가는 것일까. (1권, 207-208쪽.)

생사를 알 수 없는 피난길에서 지영의 어머니는 식량을 아끼기 위해 개장국을 샀지만 딸과 사위는 모두 비위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지 못했다. 윤씨 또한 마찬가지다.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피란민 노파가 개장국을 달라고 하여 먹는다. ‘배고픔’보다 더한 무력함의 절대적 징후²²⁾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생사를 보전하기 어려운 전쟁 중에도 배고픔, 굶주림

22) 캐롤 M.코니한, 김정희 옮김(2005), 『음식과 몸의 인류학』, 갈무리, 30쪽.

의 상황은 적을 대면할 때의 두려움 못지않게 견디기 힘든 순간일 것이다. 배고픔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 시간이 유예될수록 인간의 도덕성이나 양심, 부끄러움 등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낯선 인물에게 음식을 요구하는 일도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영은 굶주린 인간에게 연민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굶주린 개같이” 개장국을 마시고 난 후의 노파를 연안 시장에서 만난 시루떡 먹는 노파와 동일시하며, “이리들처럼 눈을 희번덕거리고” 있다거나, “비굴하게 목숨을 거머잡고 매달”려 있는 비루한 모습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에게 느낀 감정은 인간의 비루함에 직면한 감정으로서, 낭만적 경향의 지영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이런 감정에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자신도 이 노파와 같은 동류의 인간으로 전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팽배하다는 현실 직시도 들어가 있다. 지영은 유난히 여성노인이 음식을 먹는 모습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이를 통해 지영이 가지고 있는 노인관을 엿볼 수 있다. 지영은 나이 든 노파가 음식을 먹는 모습이 추해 보인다고 하였다. 노인에 대한 이러한 정서는 작가의식이 투영된 것이라 하겠다. 박경리는 비평가 김치수와 그의 대답에서 이런 생각을 고백한 적이 있다.

요즘 나이도 들고 하니까 노인네들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노인네들은 대개 비슷한 몸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손발을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얼굴이 닳아 보여요. 무엇이냐고 할까요? 죄송스럽다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오래 살아서 죄송스럽다는……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구석으로 가려는 경향이 보여요. 늙었다는 것 자체에서 열등감이 있다고 할까,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저도 늙는 것을 추하게 생각했어요. 젊어서 죽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웃음)

그리고 먹는 것이 아주 보기 싫었어요. 사람들이 허겁지겁 먹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그렇게 보이더군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나이 들면 그런 얼굴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원인을 따져보니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²³⁾

박경리는 김치수와 그의 대답에서 젊은 시절 노인에 대해 지녔던 감정, 특히 노인의 먹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다. 노년에 접어든 박경리는 노인이 음식에 집착하는 이유를 그들의 약자의 위치에서 찾고 있다. 음식에 집착하는 노인에 대한 지영의 반응은 젊은 시절 박경리의 노인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인간의 감정을 48가지로 분류하였다. 스피노자가 인간의 감정 중에서 29번째로 정의내리고 있는 것은 ‘자기비하’에 대한 내용이다. ‘자기비하’란 ‘슬픔 때문에 자기에 대해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²⁴⁾ 감정을 말한다. 그리고 슬픔은 어떤 타자가 나의 삶의 의지를 꺾을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스피노자는 ‘자기비하’와 반대 감정으로 ‘거만’을 제시하였다. 지영에게 이를 대응시키면 ‘인간의 비루함’과 ‘인간의 고결함’으로 드러난다. 지영은 후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존감 있는 여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품의 인물이 먼지 날리는 시장가에서 떡을 먹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은 인간의 품격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각인된 것이다. 이런 감정이 전쟁 중 피난길에서 만난 젊은이에게서는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남을 주시해야 한다.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는 노인과 달리 음식 대신 음악을 선택한 젊은이의 등장과 그를 바라보는 지영의 태도를 살펴보자. 인간의 비루함을 가까이에서 보지 않기 위해 동정심을 아예 차단하는 지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청년 한 사람이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다. 산개미가 덤벼드는지 이따금 얼

23) 김치수(1982), 「박경리와 그의 대화-소유의 관계로 본 恨의 原流」, 『박경리와 이 청춘』, 문학과지성사, 228-229쪽.

24) B. 스피노자, 황태연 옮김(2012), 『에티카』, 피앤비, 223-225쪽.
강신주(2019), 『감정수업』, 민음사, 30-36쪽. (강신주는 ‘자기비하’를 ‘비루함’으로 번역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비하’보다 ‘비루함’이 적합하여 이 용어를 취하였으나 스피노자의 원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은 추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굴을 쓸어보곤 한다. 그의 둘레에는 일행인 듯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인다. 서울로 공부 온 학생인 것 같다. 그는 산개미가 몹시 귀찮았던지 훌쩍 일어서서 머리를 마구 흔들어대더니 도로 드리누워 팔베개를 하며 소나무를 올려다 보고 휘파람을 분다. 아를르의 여인……

“아가 밥이 안 타나?”

윤 씨 말에 지영은 얼핏 정신을 차린다. 그러나 아를르의 여인의 휘파람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울리고 있었다. 아를르의 여인…….

(중략)

“우리가 한술 털 먹지. 와서 먹으라 카자.”

“그만두세요.”

지영은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놓고서 얼굴을 찌푸리며 막아버린다.

함께 밥을 먹고 보면 마음 속에 울리고 있는 아를르의 여인의 휘파람소리가 사라질 것만 같았다. 쓰라림과 같은 아름다움이.(1권, 205-206쪽.)

피난길에서 아침밥을 지어 먹는 지영은 먼 곳에서 ‘아를르의 여인’을 휘파람으로 불고 있는 젊은이에게 관심이 간다. 그가 밥을 먹지 않는 모습이 신경쓰인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를 불러 함께 밥을 먹자고 할 때 오히려 거부한다. 집에 두고 온 강아지 미미에게조차 연민을 느끼는 지영이의 태도를 고려하면, 굶고 있는 청년을 애써 외면하는 태도는 의미심장하게 보인다. 이것은 노파들을 통해 보았던 인간의 비루함을 체험하고 싶지 않은 소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배고픔을 음악으로 달래고 있는 청년의 이성을 존중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다. 청년이 불고 있는 휘파람 ‘아를르의 여인’은 지영의 내면세계가 지향하는 환상적이고 낭만적이며 이상적인 세계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이 음악은 연안여교의 동료교사들과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즐겨듣던 음악 ‘페르시아의 시장’과 동계에 있는 것으로서 환상, 아름다움 등을 상징하는 것이다.

연안시장에서 떡을 먹던 노파와 피난길에 개장국을 마시던 노파는 젊은이와 대조적이다. 노파의 탐욕스러운 식욕과 굶주림을 ‘아를르의 여인’이라는 미적 상황으로 대체한 것은 현실과 이상의 대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영은 젊은이와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고결한 인간, 자존을

지키려는 지영의 입장에서 젊은이의 순수, 고결함 등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다. 또는 보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지영이 음식을 먹고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혐오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음식 대신 휘파람을 분 젊은이에게 연민을 보냈듯이, ‘음식’을 먹되 이기적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는 비루함 대신 연민을 느낀다. 형무소 근처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

50년대 형무소 근처는 ‘붉은 벽돌집’을 경계선으로 하여 수감된 자와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대조적인 공간이다. 정치범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은 ‘시장’과 유사한 또 하나의 군락을 형성하고, 거기엔 음식이 주요 소비재가 된다. 인간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식량’이 있을 것이라고 한 지영의 어머니 말처럼 형무소 근처는 ‘음식’의 거래가 활발하다.

형무소 넓은 뜰에 물걸처럼 사람들이 넘실거린다. 독립문에서 서대문 형무소에 이르는 너절한 양쪽 길에도 오가는 사람들로 길이 메인다. 찌부러진 국수집, 빵집이 번창한다. 형무소 뜰에도 매점 이외 떡 장수, 고구마 장수가 목판을 벌여 놓고 있었다.

(중략)

“안 사도 좋아요! 너무 만지지 마세요! 다 똑같은데 크고 작은 게 어딴어요.”

떡 파는 계집아이가 화를 내며 아낙네의 손을 떠민다. 아낙네는 무척하게 썼다가 하는 수 없는지 떡 한개를 집고 가불가불 다 떨어진 돈 한 잎을 내놓는다. 그리고 한편에 쭈그리고 앉더니 먼지 낀 머리칼을 바람에 흩날리며 떡을 베어 먹는다.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 홀로 앉아 떡을 먹고 있는 것 같다. 쉼한 눈이 공중을 떠돌고 있다.(2권, 403쪽.)

형무소 앞에서 떡과 고구마를 파는 인물과 떡을 사먹으며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루한 인간의 모습과 다소 거리가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형무소 앞에서 떡을 먹고 있는 여성의 모습은 노파들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형무소 앞, “바람에 흩날리며 떡을 베어 먹는” 아낙네의 모습에서는 애잔함

과 연민이 스며있다. 여기서의 아낙네는 앞서 보았던 ‘노파’들과 달리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지켜주기 위해 추운 형무소 광장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 노파의 시루떡을 먹는 모습에서 느낀 감정과는 사뭇 다른 감정이다. “이 세상에 홀로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아낙네의 “험한 눈이 공중을 떠돌고” 있는 모습은 인간의 고독과 미래의 불안이 담겨 있다. 지영은 남편의 행방을 알기 위해 형무소에 매일 방문하는 상황에서 이 아낙네에게 동류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인간의 비루함을 타자에게서 발견하는 동안 심한 혐오감을 지녔던 지영은 이제 자신에게서도 이를 발견한다. 즉 한 발 건너서 지켜 본 비루함이 타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데서 충격, 그리고 절망감을 느낀다.

지영의 눈에 불이 확 켜진다.
“옳지!”

그는 외치며 부엌으로 달려간다. 조그마한 그릇을 들고 다시 광으로 달려온다. 그 덩어리를 뺨뺨 긁어낸다. 반 주발 정도는 된다. 손톱 밑이 아픈지 손을 들여다 보다가 그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칼을 가지고 온다. 하나 남김 없이 자루에 붙은 것을 칼로 밀어낸다. 제법 묵직했던 자루가 가볍게 되어버렸다. 자루를 돌돌 말아 가마니 쌓인 곳에 던지고 부엌으로 가서 물이 끓고 있는 솥을 열고 더운 물을 퍼서 딱딱한 밀가루를 반죽하기 시작한다. 좀 망울이 지지만 훌륭한 양식이다. 그는 밀가루 반죽이 얼지 않게 따뜻한 부뚜막에 두고 그릇 하나를 들고 다시 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밀가루 자루를 하나하나 뒤집어본다.

많이 붙은 것도 있고 적게 붙은 것도 있다. 습기를 많이 머금은 자루일수록 덩어리가 많다. 지영은 자루의 밀가루를 떨어낼 때 큰 덩어리에는 마치 사금 속에서 금덩어리를 골라낸 듯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참 고마운 폭격이야. 이걸 가지고 며칠을 더 살 수 있다. 자루가 서른 개도 넘는데…….)

하다가 지영의 얼굴은 파아랗게 질린다. 칼과 밀가루 자루를 내동댕이치고 소리를 내어 운다. 끼룩끼룩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호느낌, 흠먼지를 뒤집어쓴 얼굴을 그 슬한 눈물이 씻어준다.(2권, 474쪽.)

전쟁 중, 식량 마련에 고심하던 지영은 인민군이 광 속에 버리고 간 빈 밀가루 부대에 생각이 이른다. 빈 부대의 말라붙은 밀가루를 떼어내던 지영은 처음에는 환호성을 질렀으나 끝내 눈물을 쏟고 만다. 이는 고결한 성품의 지영이가 원했던 삶이 아니다. 비루하게 생존해야 하는 전쟁터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고마운 폭력”이라는 독백이 역설적 상황을 보여준다.

박경리는 김치수와의 대담에서 존엄성이라는 것은 오만과 다르며,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숭고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²⁵⁾ 그는 그 존엄을 지키는 것이 생존본능 이상으로 중요한 것임을 시사하며, 소설에서 많은 인물들이 스스로 자존을 지키기 위해, 또 비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죽거나 떠나거나 사람을 거부²⁶⁾하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박경리 소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는 바로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탐구²⁷⁾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결함의 훼손 정도를 작가는 음식을 통하여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기분이 울적할 때 먹을 것을 찾는다. 스트레스, 감정 기복 등으로 정서가 불안할 때, 신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낄 때, 심리적 결핍을 느낄 때에도 뇌는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낸다.²⁸⁾ 그러나 이러한 음식에 대한 태도는 전쟁 시기에는 하나의 사치스러운 행동이 될 것이다. ‘신체적 허기’를 충족시켜야 하는 일차원적 음식의 소명이 다급한 시기이다. 이런 모습을 노파에게서 엿볼 수 있었다.

지영의 서사에서 드러나는 ‘음식’의 문학적 재현은 비루함의 파토스와 인간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고결한 성품의 인물을 보여주는 문학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영은 타인을 바라보았던 위치에

25) 김치수(1982), 앞의 책, 244쪽.

26) 이상진(2003), 『『토지』 연구』, 월인, 28쪽.

27) 김치수(1996), 「悲劇의 미학과 개인의 恨」, 조남현 편,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85쪽.

28) 모리시타 노리코, 지희정 옮김(2018), 『맛 읽어주는 여자』, 어바웃어북, 42쪽.

머물지 않고 서서히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생활인’으로 담금질하고,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내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3. 이념과 생존의 양립, 그리고 생명주의

『시장과 전장』의 서사를 이끌고 있는 두 축은 남지영과 하기훈이다. 이 장에서는 하기훈의 서사에서 음식의 문학적 재현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다. 이 작품에서 제수와 시숙의 관계에 있는 두 인물은 상호영향 관계를 주는 플롯에 놓여 있지는 않다. 그러나 평행선처럼 진행되는 두 서사의 전개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구조였기에 선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작가가 하기훈의 서사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음식을 통해 어떻게 구현하였을까? 여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기훈의 서사에서는 먼저 그의 사랑과 이념에 대한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기훈은 거리에서 쓰러진 이가화를 구해준 후 그녀와 가까이 지내고, 이가화는 그를 사랑하게 된다. 이가화는 가족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 월남한 여성이다. 두 인물은 유사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맹목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기훈은 이념을 위하여, 이가화는 사랑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바친다. 그런데 그 이념과 사랑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사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코뮤니스트로서, 한 남자를 사랑한 여인으로서는 자신들의 이념과 사랑에 대한 고정불변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자신들의 신념을 바꾸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남지영의 삶의 태도가 전쟁에 의하여 변화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하기훈이 북한장교에서 빨치산이 되기까지 그의 주변에 있었던 이념자들은 삶의 변화를 겪는다. 스승인 석산과 동지인 장덕삼, 그가 동정하였던 어린 병사 순길 등, 이념에 대하여 수정을 하거나 전향을 하는 인물들과 대조적으로 하기훈은 자신의 종말이 어떨지 예견하면서도 입산을 강행하고, 전향을 설득하는 장덕삼을 비난한다. 이가화는 이런 하기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 위하여 입산을 선택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된다.

박경리는 이념에 대한 관심을 이 작품에서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기훈의 서사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기훈의 이념적 태도는 전쟁 발발 전과 후의 행동을 통해 부르조아 출신의 코뮤니스트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기훈은 자신의 공산주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결혼을 거부하고 가족과 유리된 생활을 하며, 심지어는 존경하는 스승의 구명 활동에도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난 이념논쟁에서는 아나키스트에 대한 인식과 코뮤니스트의 낭만성이 드러나 있다. 기훈과 그의 스승인 석산의 대화에서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의 차이, 자유와 개인의 진정한 해방을 강조하는 석산의 이념과 공산주의자 기훈의 이념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나키스트였든, 코뮤니스트였든 자신의 이념을 신봉하는 낭만주의자들의 모습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띤다. 이와 같은 낭만적 이념자의 모습은 하기훈과 동지인 장덕삼의 대화에서도 드러난다.²⁹⁾

이념에 대한 선행연구는 박경리의 시선이 객관적이었다는 논의³⁰⁾와 이념을 신봉하는 인물들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하였으나 실은

29) 김미영(2016),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낭만성과 송고」, 『문예비평연구』 52,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6-18쪽 참조.

30) 홍사중(1996), 「限定된 現實의 悲劇」, 조남현 편,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21쪽.

유중호(1996), 「여류다움의 거절」, 조남현 편,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54쪽.

중도 우익의 입장을 견지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³¹⁾로 나뉘고 있다. 필자는 후자인 김복순의 견해가 온당하다고 본다. 김복순은 작가의 중도 우익의 입장이 드러난 예를 공산주의자들의 증오와 폭력은 낱알이 보고 하면서도 국군이나 미군의 폭력에 대해서는 간단히 서술하고 넘어가는 것, 미군 병사의 죽음을 애처롭게 묘사하는 것 등에서 찾았다. 여기에 음식 모티프와 관련된 상황을 추가하여 살펴보면 작가의 중도 우익적 시선을 좀 더 생생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기훈의 서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념의 신봉자와 민중이 유대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념의 선택보다 생존을 선택하는 인물들에게 비판적 시선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기훈이 철저히 이념을 고수하는 과정이나 그의 동지들이 생존을 선택하는 과정은 모두 음식 모티프가 등장한다. 그런데 『시장과 전장』 곳곳에 음식 모티프가 편재한 것에 비하면,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장면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유일하게 ‘부엌’ 공간과 음식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오는 곳은 하기훈과 석산 부인이 술안주를 장만할 때이다.

“엉망이군요.”

술병을 놓고 어질러진 부엌을 돌아보며 기훈이 말한다.

“글쎄 식모가 나갔잖아. 노인네 두 식구에 혈 일도 없는데 식모가 붙어나질 못한단 말이야.”

“외상 얻으러 가긴 진저리가 나서 그렇겠쎄. 뭐 도와드릴 것 없습니까?”

기훈은 팔을 걷는다.

(중략)

“자네가 우리 집에 와 있음 얼마나 좋을까.”

“옛날처럼 호떡만 먹일려구요.”

“음... 참 세월이 빨라. 우리가 함빈에 살 때 호떡 많이 먹었지. 눈이 녹기 시작한 이른 봄에 집이 무너질까 봐 밤새 잠도 못자고 셋이 모여앉아 날을 밝힌 일 생각나나?”

31) 김복순(1996),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사랑과 이념의 두 구원』, 한국문학연구회, 『『토지』와 박경리 문학』, 숲, 433쪽.

“생각나구 말구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머니는 여전히 살림을 못하시는군요.”(1권, 81-82쪽)

인용문은 하기훈이 석산 부인과 음식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석산은 지금 변절한 예전의 동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이고 아내와 제자인 하기훈은 술상을 차리고 있다. 정리되지 않은 어수선한 부엌과 석산 부인의 익숙하지 않은 살림살이 모습이 나온다. 석산 부인은 남편을 따라 만주와 연해주를 함께 다녔던 여성으로서 이데올로기와 이념자들의 세계에 친숙한 인물이다. 그런데 일상적인 음식 준비는 매우 서툴러서 하기훈에게 조롱을 받고 있다. 단순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념과 실제 생활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석산 부인이 열렬한 이념자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념자 남편과 동고동락한 것은 알 수 있다. 남편과 신산한 세월을 함께 하는 동안 ‘음식’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념과 같은 한쪽으로는 경도된 모습은 결국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하기훈은 전쟁 중, 이동을 하면서 시골의 촌로와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념을 추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민중을 위한 것이라고 이상화하지만 현실에서의 민중들은 사실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냉정한 태도를 취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확인한 것이 바로 촌로와의 대화에 나타난다.

① 노인은 소년들을 쫓아가려 하지 않았다-그의 근력으로는 쫓아갈 수도 없었지만- 심한 욕지거리도 그만두고 눈만 뛰어가는 소년들의 뒷모습을 따라 간다. 쩡쩡 울리던 욕지거리와 달리 노인의 눈은 슬퍼 보였다. 소년들이 사라지자 노인은 발뚎에 앉아 있는 기훈을 힐끗 쳐다본다.

“배고프니 어찌누. 못할 것 하지. 못할 것 해.”

중얼거린다. 허리춤을 끌어올리고 노인은 다시 주저앉아 뿔아놓은 무우를 다섯 개씩 골라가며 지푸라기로 묶어 단을 만들기 시작한다. 노인은 키가 크고 골격은 매우 훌륭했으나 너무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았다.(2권, 305-306쪽)

② “먹을 만한데 무우나 잡사부시려우?”

“고맙습니다.”

“나도 자식놈이 있어서… 젊은 사람을 보면 가슴이 철렁하지.”

기훈은 뼈마디가 굵은 노인의 손을 가만히 쳐다본다.

“길 가면 유독 배가 고픈 법이요.”

노인은 허리를 구부려 결이 좋은 무우를 찾는다.

(중략)

“별말씀을… 시골은 지내기가 어떻습니까?”

“말마시요. 큰일이요. 힘깨나 쓰는 젊은 놈들은 이쪽, 저쪽에서 끌여가고 소는 다 잡아먹고 누가 씨뿌리고 밭갈이 할지 모르겠소. 게다가 피란민들이 몰려와서, 아 방금 보지 않았소? 그놈의 피란민들 아이새끼들이 고구마 씨도 안 남길라드누만. 배고픈 데는 항우장산들 별수없지. 우리 마을은 옛적부터 인심이 후해서 피란민들이 죽물이나마 얻어먹소만 워낙이, 가난이야 나라에서도 못 당한다 하지 않았소? 큰일이요 큰일, 이러다간 다 죽지 죽어. 난리보다 배고파서 꼭깁이 들고 나설 거요. 배고프면 부채(눈동자)가 꺼꾸로 서지. 양식말이나 있는 축들도 못 살 거요.”(2권, 307-308쪽)

인용문 ①, ②는 하기훈이 행군 중에 만난 촌로와 대화하는 장면으로서 노인은 이념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인간의 생존이 우선임을 드러낸다. 기훈은 일반 농민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은 사치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농민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전형이기보다 생존에 민감한 보수적인 부동층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농민들의 이러한 태도는 밤과 낮의 시차에 따라 뒤바뀌는 이념 편향의 인물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다.

또 하나,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노인’에 대한 하기훈의 시선이다. 촌로의 묘사가 앞장에서 살펴 본 ‘노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다. 노인은 너무 늙었으나 “골격은 매우 훌륭”했다거나, 고구마를 훔쳐 달아나는 피란민 소년들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은 슬퍼”보였다고 하는 점, 자신에게 무를 주기 위해 “결이 좋은 무를 찾는다” 행위를 찬찬히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인다운 풍모와 생명을 존중하는 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은 ‘노파’들이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노년의 모습이 ‘남’과 ‘여’로 구분되는 것은 박경리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편모에게 느낀 감정들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하기훈이 산 속 생활을 할 때도 음식 모티프가 등장한다. 산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물자는 바로 식량이다.

마을 아낙들이 소쿠리, 대야에 밥을 담아가지고 한줄로 서서 걸어들어온다. 굳은 표정에 눈만 신중히 사방을 살핀다. 감자국, 보리밥, 수수밥, 빗칼이 다른 밥에서 김이 오르고 반찬은 깻잎에 고추장아찌, 날된장을 퍼온 치들도 있다. 아낙들은 도망치듯 다 가버리고 순식간에 배고픈 부상병들은 밥그릇 옆으로 덤벼든다. 숨 죽인 식욕, 장을 거두어버린 장터처럼 날 된장 한 톨 남기지 않고 빈 그릇이 나뎠그라진다.(2권, 385쪽)

산 사람들은 밤이 되면 민가로 내려와 식량을 강탈해 갔다. 식량을 이동해야 하는 남자들은 사지로 가는 공포를 지녔고, 아낙들은 다시 마을로 되돌아 올 수 있었지만 ‘굳은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병사들은 전쟁에 대한 관심보다 일신의 보존을 위한 원초적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산속에 있는 패잔병들의 생활에서 이념보다 생존이 우선임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인텔리 출신의 여성 동지와 나눈 대화에서는 ‘이념’의 무상함이 엿보이기도 한다. 하기훈처럼 철저한 코뮤니스트인 여성 동지는 “닭고기”와 “감자를 기름에 튀겨서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산속 생활을 하는 동안 이념이 흔들린 것이다. 이 여성의 무의식에는 열정적인 이념을 지녔으며 전쟁과 빨치산 생활을 하는 동안 이념을 벗어난 인간 본연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념보다 ‘생존’을 우선시한 모습은 장덕삼 뿐만 아니라 하기훈이 보살폈던 소년 병사 순길이란에도 나타난다. 기훈은 토벌대원으로 전향한 순길을 우연히 만나서 그 과정을 듣게 된다. 그의 말에 의하면, 대원에서 이탈하여 낙오병이 되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이었다.

“우리는 손에 들고 입에 고구마를 문 채 걸었습니다. 미군이 찹차에 타라 하더군요. 찹차에 오르자 우리 두 사람의 손을 뒤로 묶더군요.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면서도 찹차가 달렸을 때 우리는 입에 문 고구마를 우물우물 씹어먹었습니다. 죽을 때는 죽더라도 배고픈 것을 참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참 지금 생각하면 우스워요.”(2권, 527쪽)

낙오병이 된 순길이가 일행은 인민군 복장 때문에 위협에 처하였다. 농가에서도 조심해야 하고, 음식장수에게서 음식을 얻기도 어려웠다. 결국은 미군에게 체포되었는데 이때 그들의 태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조금 전 힘들게 구한 고구마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죽을 때 죽더라도 배고픈 것’을 참아낼 수 없는, 즉 인간의 일차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장덕삼이나 소년병이 이념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작가는 비판적 시선을 보이지 않는다. 박경리는 똑같이 음식을 먹는 행위에서 노파와 소년병의 태도에 대해 시선을 달리하고 있다. 노파가 시루떡이나 개장국을 먹는 것과 소년병이 삶은 고구마를 먹는 행위는 모두 생존과 직결되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그런데 노파의 행위에서는 비루함을 느끼지만, 소년병의 행위에서는 비루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손이 포박된 상태로 고구마를 먹는 슬픈 상황을 ‘지금 생각하면 우스워요’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인간의 비루함과 다른 것이다.

장덕삼이 하기훈에게 하산을 설득할 때 하기훈은 “아직은 내게서 영웅심은 죽지 않았다. 개처럼 살고 싶진 않단 말이야.”라고 응수한다. 장덕삼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난 개처럼 살고 있소. 허나 정직하게 말이요. 사람의 부정적보다 개의 정직을 깨달은 지 오래요. 나는 개처럼 죽고 싶지 않단 말이요!”(2권, 550쪽)라고 항변한다. 장덕삼의 긴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생명의 자유”였다. 박경리는 장덕삼이나 소년병의 이념철회가 변절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인간의 본성, 나아가 생명 존중에 대한 행위라고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하기훈의 서사에서 나타난 음식의 문학적 재현은 이념을 지키려는 자와 이념을 벗어나 생존을 추구하는 자의 대립된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생존’은 궁극적으로 생명주의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경리 문학 사상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생명과 영성의 철학³²⁾으로 보기도 하고, 그의 문학의 기저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소외문제, 그리고 낭만적 사랑에서 생명사상으로의 흐름³³⁾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는 작가가 직접 언급한 여러 글³⁴⁾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작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작중인물들의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생명주의에 닿아 있음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각 지역에서 보여준다. 지영의 서사에서 ‘돌봄’이나 생명 존중의 모습은 피난길 위에서, 또는 9.28 수복 전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이웃들의 행위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얼굴도 모르는 타 지역의 주민들이 피란민에게 보여준 돌봄의 태도는 지영이 연안여고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선명히 나타난다.

고개를 넘고 또 넘고
“물!”

32) 김영민(1996), 「박경리의 문학과 연구-고통과 창조, 그리고 생명의 글쓰기」, 한국문학연구회 엮음, 『『토지』와 박경리 문학』, 숲, 208쪽.

33) 이상진(2003), 『『토지』연구』, 월인, 28쪽.

34) “우주의 만물이 있는 그대로가 자연이라 한다면 초자연 우주를 넘어선 또 다른 우주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인간 속에 내재된 영성도 초자연의 다른 우주에 속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러한 분리법은 알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인간의 둔사가 아닐런지요. 기계론의 경우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생명의 고리로 엮어진 총체를 생명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은 난도질을 당하여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박경리(1994),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나남출판사, 28쪽.)

“생명의 개체 하나하나가 그 얼마나 균형으로 긴장되어 있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치열함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며 자연의 균형이 그 얼마나 비정함을 깨달을 때 그 완벽한 거리감에서 구원이 없는 존재 자체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경리(1995),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현대문학사, 227쪽.)

인가가 있는 마을 어귀. 피란민을 위해 떠 내놓은 물이 대야마다 가득히 넘쳐 있었다. 마을 부인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와서는 비워진 대야에 물을 붓는다.

김인자와 지영은 꿀물같이 달게 마시고 길옆에 주저앉아 건빵을 씹는다.

“수건 적셔서 땀 닦으며 가시우.”

물동이를 이면서 마을 부인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들은 바가지로 물을 떠내어 얼굴을 씻는다. 손수건은 건빵을 씹으므로 적실 수도 없고 얼굴을 닦을 수도 없다. 그들은 물이 흐르는 얼굴을 그냥 햇볕에 말리며 길을 떠난다. 마을 어귀마다 피란민들이 마실 물이 준비되어 있었다.(1권, 187쪽.)

이 작품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 태도³⁵⁾는 주인공 지영의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으나 사실은 그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민적 인물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음식의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영과 동료교사들이 서울로 돌아올 때 낯선 동네의 부인들이 길 어귀마다 대야에 마실 물을 마련해 주었다. 군인들이 건네준 건빵과 시골 사람들이 피란민들에게 마련해준 주먹밥, 농촌으로 피란 온 소년들이 고구마를 훔칠 때 이를 묵인한 촌로의 행위와 그가 들려준 미군 병사에게 삶은 감자를 갖다 준 행위 등은 모두 생명에 대한 소중함, 가장 곤궁한 사람을 돌보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돌봄의 태도로 작중인물들에게 감동을 준 사건은 지영의 딸 희가 아플 때 귀한 계란을 선뜻 내놓은 이웃 김씨 부인에게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음식 모티프들은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을 통하여 다양한 의미망을 생성하고 있다. 고결한 인간의 모습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지키는 것, 결국 박경리의 문학사상이라 할 수 있는 생명주의의 구체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5) 지영에게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은 피란길에 데려 가지 못하는 개 ‘미미’를 대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지영은 미미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녀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으로 마련한다. (1권, 200-201쪽 참조 바람.)

4.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박경리의 장편소설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음식 모티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작품을 다시 읽는 과정을 가져 보았다. 박경리의 60년대 장편소설 중에서 『시장과 전장』만큼 음식 모티프를 통하여 문학적 상황을 다양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은 보기 드물 것이다. 이 작품에는 100여 곳에 음식 모티프가 등장하고 있다. 단순한 소재로서의 음식부터 작중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거나 작가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음식 모티프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폭넓은 편이다.

이 글에서는 핵심 서사와 관련된 음식의 문학적 의미를 살펴보느라 많은 부분을 언급하지 못하였다. 주인공 지영이 연안여고의 동료교사들과 식사와 커피를 즐기던 시간은 60년대 여학교 교사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그녀의 하숙집 주인은 외로워 보이는 지영과 함께 밥 먹기를 청하였고, 동료교사들과 온천으로 여행하였을 때 국군장교의 융숭한 음식접대가 있었다. 한편, 지영과 남편이 원만한 부부 생활을 누리지 못한 원인에는 음식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편이 남의 밭에서 캔 감자 몇 알과 지영이 임신 중에 혼자 해먹은 콩이 들어간 흰쌀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서먹하게 한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여 지영이 서울의 가족들에게 돌아올 때 건빵을 챙겨주던 군인들, 피란민들에게 마실 물을 길어다 주던 시골 주민들, 하기훈에게 맛있는 무를 대접하고 싶어하던 촌로, 하기훈이 민간인에게 베푼 음식, 입산한 여성동지의 음식에 대한 욕망, 지영의 딸이 아플 때 귀한 계란을 선뜻 내주었던 이웃, 먼 곳에서 지영네 집을 찾아온 지인들이 사가지고 온 군고구마, 특히, 피난길에 도움을 주었던 병어리 소년의 물 등. 본문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많은 음식의 문학적 재현들이 작품 곳곳에 편재하여 있다.

무엇보다 음식 모티프로 가장 압도적인 장면은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보았다. 쌀자루를 꼭 껴안고 죽은 어머니와 피에 젖은 쌀자루의 모습은 이데올로기와 식량(음식)의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지영의 어머

니 윤씨는 국군이 식량을 배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강으로 나갔다가 참변을 당하였다. 이것은 쌀 배급을 내세워 서울 잔류파들을 소탕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손자와 딸을 위해 쌀자루를 꺼안고 죽음에 이른 어머니의 모습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초래한 모성성의 희생인 것이다.

『시장과 전장』에서 가장 주목할 음식의 문학적 재현은 두 주인공 남지영과 하기훈을 통해 두 가지 의미로 집약되고 있다. 하나는 낭만적 특성을 지닌 지영의 서사에서 음식 모티프를 통하여 인간의 비루한 모습에 혐오감을 느끼는 주인공의 심리표현과 동시에 인간의 자존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지영은 노파들이 음식에 집착하는 모습에서 구역질을 느낄 정도의 혐오감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인간의 고결함이 훼손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영의 모습에서 부각된 생명체에 대한 존중은 박경리의 문학사상인 생명주의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철저한 코뮤니스트의 길을 걷는 하기훈의 서사에 나타난 음식 모티프로써 음식을 통하여 코뮤니스트들의 이념을 신봉하는 모습과 생존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음식은 사회적, 역사적 재구성의 힘을 지닌 대표적인 문화로서 박경리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문학사상이라 할 수 있는 생명주의를 구체화하였다. 이 글은 『시장과 전장』을 새롭게 보려는 시각을 지녔지만 박경리의 근원이 되는 문학적 상상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드러내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음식’이라는 회로를 통해 그 문학적 상상력에 도달하는 길을 하나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 박경리(1993), 『시장과 전장』, 나남출판.
 박경리(1999), 『표류도』, 나남출판.
 박경리(1995), 『파시』, 나남출판.

2. 저서

- 김치수(1982), 「박경리와 의 대화-소유의 관계로 본 恨의 原流」, 『박경리와 이청준』, 문학과지성사.
 소래섭(2018), 『백석의 맛』, 프로네시스.
 이상진(2003), 『『토지』연구』, 월인.
 이재선(1991),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주영하(2000), 『음식전쟁, 문화전쟁』, 사계절.
 주영하(2011), 『음식인문학-음식으로 본 한국의 역사와 문화』, 휴머니스트..
 한국문학연구회 엮음(1996),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
 B. 스피노자, 황태연 옮김(2012), 『에티카』, 피엔비.
 Counihan, C. M, 김정희 옮김(2005), 『음식과 몸의 인류학』, 갈무리.
 조너선 실버타운, 노승영 옮김(2019), 『먹고 마시는 것들의 자연사』, 서해문집.
 Steel, C., 이애리 옮김(2010), 『음식, 도시의 운명을 가르다』, 예지.

3. 논문

- 김경수(2003), 「소설·여성·음식」, 『인문과학연구』 8,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20쪽.
 김동식(2012), 「1920년대 중반의 한국문학과 ‘끼니’의 무의식: 김기진과 최서해 그리고 ‘밥’의 유물론」, 『문학과 환경』 11(1), 문학과 환경학회, 175-205쪽.
 김미영(2016),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낭만성과 숭고」, 『문예비평연구』 52, 한국문예비평학회, 33-60쪽.
 김미영(2018), 「음식의 문학적 재현과 주체화의 방식 - 한강과 오수연의 소설에 나타난 ‘음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9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39-270쪽.
 김미혜·정혜경(2011), 「소설『미망』속 19세기말 개성의 음식문화」,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1, 동아시아식생활학회, 471-484쪽.
 김미혜·정혜경(2011), 「소설 『토지』를 통한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의 음식문화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6, 한국식생활문화학회, 539-553쪽.
 김복순(1996),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사랑과 이념의 두 구원」, 한국문학연구회,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
 김양선(2008),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페미니즘연구』 제8권, 한국여성연구소, 197-222쪽.
 김영민(1996), 「박경리의 문학과 연구-고통과 창조, 그리고 생명의 글쓰기」, 한국

문학연구회 엮음,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

김은경(2014), 「프랑스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음식과 기호」, 『프랑스어문교육』 제46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65-87쪽.

김재경(2009), 「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김이태 「식성」과 한강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학회, 251-281쪽.

김주연(2015), 「한국 음식소설의 맥락과 가능성-한국 음식문화의 맥락과 가능성①」, 『우리어문연구』 52, 우리어문학회, 41-67쪽.

김태형(2013), 「음식 철학 속에 담긴 프랑스 역사와 문화에 관한 고찰」, 『시대와 철학』 제24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65-98쪽.

나보령(2016), 「시장의 풍경에 주목해 다시 읽는 전후소설 시론」, 『현대소설연구』 제6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37-66쪽.

신수정(2010),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9, 문학과환경학회, 193-211쪽.

우수영(2015), 「박경리 『토지』와 최명희 『혼불』을 통해 고찰한 한국의 음식문화」, 『현대소설연구』 58, 한국현대소설학회, 257-291쪽.

유입하(2012),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문학적 전환-《애가》와 《표류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6, 한국문학연구학회, 481-508쪽.

이 경(2004), 「근대소설과 음식의 기호학」, 『현상과인식』 28,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44-173쪽.

이 경(2004), 「5·60년대 한국소설과 음식의 기호학: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26, 한국사회이론학회, 336-359쪽.

임경순(2005), 「유토피아에 대한 몽상으로서의 이념 -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45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71-298쪽.

정희모(1996), 「현실에서의 환멸과 삶의 의지」, 한국문학연구회 엮음,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

- ◎ 논문접수: 2019년 5월 24일
- ◎ 논문심사: 2019년 6월 4일 ~ 6월 11일
- ◎ 게재결정: 2019년 6월 24일

☐ 김미영
 ☎ 소 속: 한양대학교
 ☎ 주 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602호
 ☎ 전자우편: rhypaper@hanyang.ac.kr

<Abstract>

Literary Representation of Food and Meaning in Park Gyeong-ri's Novel

-Focused on *The Market and the Battlefield*.-

Kim, Mi-young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ways that war experiences and aspects of daily life were embodied through food motifs in Park Kyung-ni's early novels including *Pyoryudo*, *Pasi*, and *The Market and the Battlefield*. Food has materialistic nature of being directly connected to human survival and performs a narrative function involved in the meanings of a novel as part of literary reproduction.

The investigator decided to approach Park's early novels through the cultural code of "food" because it was a valid material to figure out the meanings of human beings in competition between the extreme situations of war and daily life. General discussions about her early works have converged into making her private experiences a narrative and depicting the inner worlds of female characters. The points where her works started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these characteristics were *Pyoryudo*, *Pasi*, and *The Market and the Battlefield*. That is, these texts show her shift from making a narrative out of her personal experiences with a difficult life of supporting her family as a war widow and the sentiment of distrust across the society to ensuring some distance to figure out the meanings of war in an objective manner and recognizing them within the social, historical, and ideological magnetic field. In addition, these works contain the traces of life ideas that were the basis of her literary imagination till *The Land* that was the condensation of her literary world.

Of these three works, *The Market and the Battlefield* depicts the food culture in colorful ways. Consisting of total 40 chapters, this work presents food in almost every chapter to develop an event and depict the inner psychology of a character. Most of the foods at about 100 points in the novel are staple or emergency foods including rice, sweet potato, and rice cake. They work to show changes to the consciousness of its main characters, Nam Ji-yeong and Ha Gi-hun, and their psychological circumstances. The food culture via Ji-yeong shows the low nature of human beings and also life ideas and aspects of human dignity to overcome it. The food culture related to Gi-hun shows a post-ideological attitude.

Compared with *The Market and the Battlefield*, *Pyoryudo* and *Pasi* have a relatively lower frequency of food culture depicted in them. Set in the post-war time or home front distant from the war field, these two works describe daily life that would continue on even in the middle of shocks from the war. Park used food to talk about respect for life, caring for others, and sex morality experienced by women in *Pyoryudo*, which is about the life of a war widow called Kang Hyeon-hoi, and *Pasi*, which tells the stories of love and parting between Jo Myeong-hwa and Park Eung-ju in Busan. Food is the representative culture of power for social and historical reorganization, and Park used food ultimately to depict her life ideas representing her literary ideas in concrete manners.

Keywords: Park Gyeong-ri, *The Market and the Battlefield*, War, food, low nature of human beings, post-ideological attitude.